공익법률센터 제2회 콜로퀴움

Public Interest & Legal Clinic Center Colloquium 2026-II

SNU Law 공익법률센터

변화하는 사회, 공익과 사법:

법의 원칙은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응답하는가

Public Interest and the Judiciary in a Changing Society:

How Legal Principles Respond to New Social Realities

강 연 권영준 대법관 (대법원)

대 담 이수진 교수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일 시 2026. 11. 4. (수) 12:30–13:50

장 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4동 101호 최종길홀

*사전 신청자에게 행사 시작 10분 전부터 샌드위치와 음료가 제공됩니다.

참가신청

기술의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는 법적 분쟁의 양상을 바꾸고, 다양한 권리와 가치 사이의 충돌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이는 달라진 사회현실과 축적된 법 원리의 관계를 다시 묻게 하며, 구체적인 분쟁 속에서 법의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고 사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게 합니다. 공익법률센터 제2회 콜로퀴움은 사법의 자리에서 이 물음을 마주하며, 새로운 현실에 법의 원칙으로 응답하는 사법이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,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익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봅니다.

법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아우르며, 민사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·개인정보·국제거래와 AI·데이터 등 시대가 제기하는 법적 문제를 폭넓게 탐구해 온 권영준 대법관은, 이번 콜로퀴움에서 법원이 마주하는 분쟁의 변화 양상을 실마리로 삼아 복잡한 현실에서도 판단의 중심을 이루는 법 원리의 의미를 되짚습니다. 나아가 현실의 갈등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고, 추상적인 법 원리를 구체적인 분쟁에 온당하게 적용하는 사법의 역할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눕니다.

이어지는 대담은 경제법과 AI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법질서와 공익에 던지는 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임상법학교육과 연결해 온 이수진 교수와 함께합니다. 사법이 변화하는 현실에 어디까지,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지, 법적 판단에서 공익은 어떻게 자리하는지, 그리고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며, 강연의 문제의식을 오늘의 사회와 법의 과제로 이어갑니다.

주 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